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2010 익산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백제황후(The Queen of Baekje)
수상내역	장려상
작가	염빛나리
주제	서동요, 미륵사, 사리장엄
제출형식	희곡 대본
스토리 구성 (plot)	<p>마를 깨던 서동이 서동요로 선화 공주를 얻고, 백제 무왕이 되었다는 설화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었다. 얼마 전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굴된 금제사리봉안기에는 백제 무왕의 황후가 좌평 사택적덕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사실 때문에 아름다운 설화가 묻히는 것이 안타까웠다. 황제가 되려 하는 자 서동, 황후가 되고 싶은 자 선화의 욕망과 그로 인한 비극을 그려내려 했다. 또한 이들의 슬픈 사랑이야기를 바늘에 비유해 비극성을 극대화했다.</p>
기획의도	<p>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서동과 선화공주의 러브스토리. 그러나 안타깝게도, 금제사리봉안기의 출토와 함께 그저 설화에 불과한 이야기로 치부될 위험에 놓였다. 이 극에서는 좌평 사택적덕의 딸이 황후였다는 역사적 사실과 선화공주가 서동의 부인이었다는 설화를 조합하여,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이 현대에도 그 빛을 이어가도록 그려냈다.</p>

백제 황후 - The Queen of Baekje

황제가 되려 했던 여인,
그 여인을 사랑한 한 남자.

프롤로그

무대 한 편이 밝아진다
선화가 백제 황후의 복색을 차려 입고 서 있다

선화 황제가 되고 싶었다.

다른 편이 밝아진다
서동이 백제왕의 복색을 차려 입고 서 있다.

서동 한평생 마를 캐며 살다 가고 싶었다.
선화 황제가 못 된다면, 황후가 되고 싶었다.
서동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었다.
선화 효의 도리보다, 연모의 마음보다 큰, 야욕.
서동 내가 한 것은 사랑 뿐, 어머니, 어머니.

천천히 몸을 돌려 서로를 쳐다보고
서서히 서로에게 가까워진다.
선화, 돌연 외친다.

선화 폐하! 어찌 자꾸 신라를 침략하나이까? 제 아비와 저를 원수로 만들 작정이십니까!
서동 그리하면, 내가, 백제가 가만히 있으란 말ियो? 그것이 백제의 황후라는 자가 할 말ियो? 신라가 더 이상 조공을 요구하지 않고, 먼저 칼을 들이대지 않는다면 내 침략을 하지 않을 것이오!

선화 개구리 올챙이 적 기억을 못 한다 하더니, 폐하가 그 꼴이십니다. 언제
 부터 폐하가 백제의 황제가 되셨는지 기억은 하십니까. 어떻게 황위에
 오르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서동 모두 지난 일이오!

선화 폐하는 저, 선화와만 혼인한 것이 아니라 신라와도 혼인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제게 칼끝을 겨누지 마옵소서!

서동 그럴 수 없소!

선화 그리하면 저를 죽이시겠습니까!

서동 어쩔 수 없소!

선화 ……폐하께서는 제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서동 말문이 막힌다.

선화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서동이 대답 없이 고개를 돌린다.

선화 그렇다면 저를 죽여주옵소서.

주저앉아 절규하는 선화

선화 눈을 도려내, 아비의 땅을 탐하는 꼴을 보지 않게 해주옵소서. 귀를 쳐
 내 좌평들의 음해를 듣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차라리 찢어 죽여, 암
 살의 위협에 떨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발 죽여주시옵소서!

오열하던 선화,

곧 스르륵 일어나

서동과 마주보고

그러나 거리를 두고 선다.

서동과 선화가 원을 그리며 돈다.

서로를 견제하듯, 혹은 회롱하듯,

혹은 가 닿을 수 없다는 듯,

원을 그리며 돈다.

그러다 서로 엇갈려
각기 무대 다른 편으로 퇴장한다.

1막

- 1장

무대 한 편이 밝아온다.
허름하고 작은 초가집.
서동모(母)가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고,
서동이 마가 든 바구니를 들고 들어온다.

서동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많이 팔지 못했어요. 이렇게나 많이 남았
 습니다.

서동모 오늘 팔지 못한 것은 내일 팔면 그만이다. 이제 바구니는 내려놓고, 글
 을 읽거라.

서동이 책을 펼치고 노래하듯 글을 읽는다.

서동 염구 왁, 비불열자지도 역부족야.¹⁾ 염구가 말하였다. 스승님의 도를 기
 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힘이 족하지 못합니다.

서동모가 천천히 일어나 무대 반대편으로 간다.

반대편 조명이 밝아진다.

반대편은 으리으리한 부잣집의 안채.

해씨와 진씨가 앉아 모의를 하고 있다.

서동모 (걸어가며) 자식 글 읽는 소리보다 듣기 좋은 소리가 또 있을까.

서동 자왁, 역부족자 중도이페 금여획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힘이 족하지
 못한 사람은 중도에서 그만둔다. 지금, 너는 선을 굽고 있다.

해씨 위덕왕의 동생 해왕이 즉위한지 1년 만에 서거하시고

1) 논어

진씨 그 뒤를 이을 위덕왕의 장자, 아좌태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네
 해씨 이제 혜왕의 장자 효순이 즉위하였지
 진씨 계보가 어지럽다. 사택씨와 연씨가 효순을 내세워 우리를 몰아내려 해.

서동모가 해씨와 진씨 앞에 앉는다.

서동모 계보를 정리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해씨 그래서 자네를 불렀지.
 서동모 이제야 제 말을 믿으십니까.
 해씨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네.
 진씨 남들이 믿을만 한가 믿을만하지 않은가가 중요하지.
 해씨 자네의 이야기는 믿을만 한가?

서동모가 스르륵 일어선다.

서동모 두 좌평들도 아시듯이, 원내는 황후를 모시던 지밀 나인이었습니다. 황후의 위엄과 우아함은 모두 제 손 끝에서 나온 것. 의복 하나, 버선 하나 제 손으로 입혀드리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자나 깨나 황후를 보필했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황제를 향한 연모의 마음이 자라나기 전까지는.
 해씨 사설은 집어치워. 우리가 듣고 싶은 건 좀 더 은밀한 이야기라네.
 진씨 궁에서 쫓겨나자마자 배가 불렀다지?
 서동모 밤이었습니다. 궁궐의 동쪽, 연못을 지나던 길이었습니다. 초승달이 비친 연못이 하도 요기스럽고 아름다워, 발을 멈추고 하염없이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낮이 보여주지 않는 것들이 물 위로 떠오르고, 알지 못했던 것들이 저를 덮쳤습니다.
 해씨 무엇이 덮쳤는가?
 서동모 평생 몰라도 되었을 것들, 슬픔과 후회, 주저앉아 꺾꺾 울며, 스스로를 동정하게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왜 황후를 모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씨 또 다른 것이 덮치진 않았는가?
 서동모 어둠 속에서 무언가 다가왔습니다.
 해씨 그리고?

서동모 그분이 제 입을 막고, 땅에 눕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해씨 그분이 누구던가?
 서동모 사방이 어두웠고, 그분의 얼굴엔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눈을 질
 끈 감았습니다. 그릉거리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분이 일어서 걸어
 가시고, 겨우 옷을 추스를 수 있게 되었을 때, 간신히, 그분의 등 뒤로,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손을 뻗으며) 누구십니까. 존함을 알려주십시
 오. 지금 일어난 일들을 명명할 수 있도록, 이름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씨 황제라고!
 서동모 나는 용이다. 너는 용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는 꺾꺾 웃으며, 어둠 속
 으로 사라지셨습니다.
 해씨 위덕왕께서 기이한 취미가 있으셨구나.
 진씨 남자들은 그런 취미가 하나쯤 있게 마련이지. 황제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
 서동모 얼마 안 가 배가 불러왔고, 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해씨 애를 뱀 나인을 처형하지 않았다니, 위덕왕의 처사가 분명하다.
 진씨 아이 이름을 뭐라 하였다고?
 서동모 아명을 서동이라고 지었습니다.
 해씨 마를 캐고 다니는 왕자라.
 진씨 황족의 골격이 있는지 보아야겠다.
 서동모 곧 보시게 될 것입니다.

서동모가 일어나 천천히 무대 반대편으로 걸어간다.
 부잣집 편 조명 어두워진다.
 서동이 바구니를 매고 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

서동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서동모 오늘은 마를 캐지 말거라. 대신 할 일이 있다.
 서동 그 일이 무엇입니까?
 서동모 때가 왔으니, 해좌평 댁에 다녀오거라.
 서동 때라니요? 무슨 때입니까?
 서동모 네가 황족임을 알릴 때가, 드디어 왔다. 내 늘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장차 백제의 황제가 될 것이다.

서동 정말로 제가 황제가 되리라 믿고 계시는군요.

서동모 내 믿음은 중요하지 않다. 후에 남들이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서동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황제가 된다면 모두가 비웃을 것입니다. 고작 마를 캐어 장에 내다 파는 서동이가 어찌 황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서 황제가 되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침에는 마를 캐고, 밤에는 글을 읽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고,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서동모 황제가 되기 전까지 충분한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비웃는 자들을 비웃을 수 있도록, 네 피를 증명해야 한다. 이 어미가 궁에서 쫓겨날 때 나를 두고 온갖 입방아를 찧었던 자들, 나를 비웃었던 자들을 네가 비웃어야 한다.

서동 저는 무엇도 다스려본 적 없습니다. 황실의 법도도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할 줄 아는 일은 오직, 마를 캐는 일과 노래를 지어 부르는 일 뿐입니다. 이것이 왕의 자질입니까?

서동모 네가 왕이 된다면, 네 모든 것이 왕의 자질이 될 것이다.

서동이 무대 반대편으로 걸어간다.

한숨을 푹 쉬는 것이, 흡사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다.

초가집 편 조명 사워고

부잣집 편 조명 밝아진다. 해씨와 진씨가 있다.

서동 (걸어가며)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서동모 (서동 뒷모습 보며) 곧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서동이 해씨와 진씨 앞에 앉는다.

해씨와 진씨, 서동을 요리조리 둘러보고,

손을 만져보고, 얼굴도 짚어본다.

해씨 넓적한 코도 닳았고

진씨 부리부리한 눈도 닳았네

해씨 대왕의 골격이야

진씨 용의 아들이야

해씨 누가 봐도 믿겠어
 진씨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지.
 해씨 백제 황실의 계보에 대해 알고 있느냐?
 서동 위덕왕의 동생 혜왕이 즉위한지 1년 만에 서거하시고, 그 뒤를 이을 위
 덕왕의 장자, 아좌태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으며, 그 후 혜왕의 장자
 효순이 즉위하였습니다.
 해씨 그 계보는 너무 어지러워. 네가 위덕왕의 뒤를 이어, 그 계보를 정리할
 것이다.
 진씨 사택씨와 연씨를 제압하고, 우리의 힘을 키워줄 것이다.
 해씨 효순은 허수아비 왕이야. 왕보다는 스님이 되어 불가에 귀의해야 했을
 위인이지.
 진씨 사택씨와 연씨만 잘 피한다면, 황제를 넘어뜨리기는 쉬운 것이다. 어찌
 면 황위를 가져가라고 반길지도 모르지.
 해씨 위덕왕의 표식은 우리가 만들어주마.
 진씨 인장이 새겨진 단검, 반으로 찢긴 비단, 반으로 갈린 청동 거울, 뭐든지
 만들어주마. 남들이 믿을만한 건 뭐든.
 해씨 하지만 그걸로도 부족하지.
 서동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해씨 황제의 위엄이다.
 진씨 황제의 비범함이다.
 서동 가지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합니까?
 해씨 튼튼한 배경을 만드는 능력! 수완!
 서동 모르겠습니다.
 해씨 신라로 가거라.
 진씨 가서, 신라 왕가와 피를 섞어라.
 서동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마를 캐는 서동입니다. 시장 바닥을 전
 전하는 놈입니다.
 해씨 무슨 소리! 너는 용의 아들이 아니냐.
 서동 과거를 향한 노모의 한탄일 뿐,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해씨 자네는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있군.
 진씨 믿어라. 스스로 믿으면, 남들도 믿게 될 것이야.

- 2장

부잣집 안채가 있던 자리가 궁궐이 되었다.

효순이 어좌에 앉아있고,

해씨와 진씨, 사택씨와 연씨가 양 옆으로 나란히 앉아 있다.

서동이 효순 앞에 나아간다.

진씨 위덕왕의 서자로 알려진 장을 대령하였사옵니다.

효순 과연 황족의 골격이 엿보이는구나. 표식도 있다 하던데, 보여주겠느냐.

서동이 청동거울을 꺼내 내려놓는다.

사택씨가 거울을 집어 살펴보고, 효순에게 건넨다.

효순 위덕왕의 물건이 맞구나. 이것을 내가 어찌 갖게 되었느냐?

서동 소생의 어미가 저를 배고 쫓겨나기 직전, 위덕왕께서 은밀히 이 표식을 제 어미에게 주었다 하옵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아들이면, 언젠가 이 표식을 들고 궁을 찾으라 했다 하옵니다.

연씨 하오나 폐하, 이것이 위덕왕의 물건인지 어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마음만 먹는다면 거울쪼은 쉬이 조작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사택씨 게다가 이 자의 어미라는 자는 배가 불러 궁궐에서 쫓겨난 지밀 나인이옵니다. 위덕왕의 은혜를 입었다면 쫓겨나지 않고 후비가 되었을 터입니다.

해씨 사택좌평은 어찌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하오? 폐하, 만약 그 나인이 범부의 아이를 뱌다면, 내쫓는 대신 목을 쳤을 것이옵니다. 그 나인을 후비로 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장이 위덕왕의 자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사옵니다. 당시 위덕왕께서 어떤 생각으로 그리하셨는지, 지금의 누가 알 수 있겠사옵니까?

연씨 해좌평은 지금, 위덕왕이 그 나인을 겁탈했다고 말하는 것이오?

해씨 어찌 선왕을 두고 그런 망발을 하시오! 그 나인은 은혜를 입은 것일 뿐이오.

사택씨 폐하, 이 장이라는 자가 악한 마음을 먹고 황족이라는 증거를 꾸민 것이라면, 스스로 그러하지는 못하였을 것이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하여 이에 연루된 자들을 밝혀내, 모조리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효순 그렇다면 조사를 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어찌 사실을 밝혀낼 것인가?
 무덤은 말이 없는 법인데……. 그 위세를 떨치던 위덕왕도 무덤으로 들
 어가셨다. 공수래공수거라, 모든 것들은 이처럼 부질없게 마련.
 연씨 폐하, 이는 왕가의 혈통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옵니다.
 효순 조사를 할 수 있다면 해보도록 하시오. 장은 물러가도 좋다.

서동이 뒷걸음질로 공손히 무대 반대편으로 걸어간다.
 반대편은 여전히 서동의 초가집이다.
 서동모가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다.

효순 그보다, 민가의 매들은 다 놔주었는가? 사냥도구들도 모두 없었는가?
 사택씨 백성 모두 왕명을 받들어, 매들을 방생하고 사냥도구를 소각하였습니
 다.
 효순 살생을 철저히 금하도록 하라. 그것이 한량없는 부처님의 뜻이다.
 연씨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궁궐 편 조명 어두워진다.
 서동이 서동모 곁에 무릎 꿇고 앉는다.

서동모 궁궐에 다녀왔느냐.
 서동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서동모 황실의 법도를 몰라, 혹 실수하지는 않았느냐.
 서동 (여전히 대답이 없다)
 서동모 왜 그리 묵묵부답이냐.
 서동 (고개 들며) 어머니, 이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동모 겁먹지 말거라. 황족에겐 두려움이 어울리지 않는다.
 서동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황족일 수 없습니다. 황족이고 싶지 않
 습니다.
 서동모 정신 바짝 차려라. 그런 나약한 마음가짐으로는 금세 힘과 모략에 당하
 고 말 것이다.
 서동 얼마 후면, 저는 신라로 갈 것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기약도 할 수 없
 습니다. 어머니를 여기 홀로 지내시게 하고 신라로 간다니요? 신라의
 공주를 취하러 간다니요? 제가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서동모 내 걱정은 말고, 네가 할 일에 집중하거라.

서동 어머니,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고 몇 번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황제의 재목이 아닙니다. 저는 산에서 마나 캐며, 노래나 부르며 살고 싶습니다. 평생 궁궐에서 권력 싸움을 하다 죽고 싶지는 않아요. 어머니, 저는 황제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죽기보다 싫습니다.

서동모가 바느질 하던 실을 끊고, 바늘을 입에 넣는다.

서동 어머니! 위험합니다!

서동모 나는 이 바늘을 뺄 수도, 삼킬 수도 없다.

서동 어머니…….

서동모 말해보아라. 삼킬 수 없는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서동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서동모 뺄 수 없는 까닭도 아느냐.

서동 ……모르겠습니다.

서동모 첫째는 가진 무기가 이 작은 바늘밖에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남들에게 무기가 있는 것을 알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순간에 적을 찔러 넘어뜨릴 수 있으려면, 그때까지 나는 바늘을 뺄어서는 안 된다. 그뿐이냐, 바늘을 물고 웃어야 한다. 아무리 입 안이 터지고 혈터라도.

서동 (고개를 숙인다)

서동모 너는 내게 바늘이었다. 나는 너를 뺄 채 자결할 수도 있었다. 그게 아니면, 네 혈통을 일찍이 사방에 알릴 수도 있었어. 그러나 나는 너를 입 안에 물고 세월을 견뎌냈다. 중요한 순간을 위해.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바늘 뺄어내 손에 들고 보며) 이제야, 나는 바늘을 꺼내 들었다.

서동 (고개 들어 서동모를 본다)

서동모 네가 가진 무기 역시 바늘뿐이다. 남보다 스스로를 더 위협하는 무기를 지니고 사는 것이, 이 작디 작은 무기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네 운명이다. 그런데 너는 지금, 바늘을 삼켜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이냐.

서동 마를 캐며 살겠다는 것은, 죽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서동모 아직도 모르겠느냐. 황제가 되지 못하면 죽을 것이다. 사택씨와 연씨 무리가 너를 가만 둘 것 같으냐.

무대 반대편이 다시 밝아진다.
흐릿한 조명 때문에 장소가 어딘지 알기 힘들다.
사택씨와 연씨가 쑥덕거리고 있고,
검은 복면을 입은 자객이 그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인다.
자객이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초가집을 향해 걸어가고
반대편 조명은 다시 사원다.
자객이 몸을 숨긴 채 초가집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를 듣는다.

서동 ……어머니.
서동모 또 할 수 없다는 소리를 하려는 게거든, 차라리 입을 열지 말거라.
서동 좋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제게 정말 황족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제가 정말 위덕왕의 아들입니까.
서동모 진실로 너는 용의 아들이다. 연못가에서 나를 한 번 품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용! 내게 바늘을 품게 한 용!

자객이 초가집에 들어선다.
칼을 치켜들고 서동을 찌르려는데
순간 서동모가 막아선다. 대신 칼에 찢린다.
동시에 자객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른다.
서동모의 바늘에 눈이 찢렸다.

자객 내 눈!
서동 어머니!

얼굴을 부여잡고 도망치는 자객.
서동이 서동모를 부축하며 주저앉는다.

서동 어머니, 눈을 뜨세요. 어머니!
서동모 (힘겹게 눈을 떠, 서동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황제가…되어야 한다.

서동모의 팔이 힘없이 떨어지고
서동은 절규한다.

서동 어머니! 어머니! 어찌 저를 두고 가시옵니까! 어머니!

조명이 어슴푸레해지고
귀기어린 밤이 된다.
절규하던 서동은
서동모가 바느질하던 푸른 천으로
천천히 서동모를 덮는다.
정성스럽고 조심스러운 손길로
무덤의 흙을 돋우듯
푸른 천을 바로잡는다.
향로에 향을 피우고
천천히, 시체를 향해 절을 두 번 한다.
무릎 꿇은 채 말한다.

서동 어머니, 죄송합니다. 3년상을 다 못 치루는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천천히 일어선다.

서동 저는 신라로 갑니다, 어머니. 그곳에서, 기필코, 신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바늘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백제
의 황제가 되어, 어머니와 저를 비웃던 자들을 비웃겠습니다. 지켜보십
시오. 황제가 되어 보이겠습니다. 기필코 황제가 되어 보이겠습니다.

돌아서서 뚜벅뚜벅 퇴장한다.
암전.

2막

- 1장

무대 한 편이 점점 밝아진다.
신라의 황실 사냥터다.

시원한 바람 소리, 새 지저귀는 소리 들려온다.

진평왕과 선화가 활을 들고 달려 나온다.

진평왕이 활을 겨누려는데,

선화가 속삭인다.

선화 아바마마, 이번에는 제가 해보이겠습니다.

진평왕 (활을 내리며) 그래? 오냐, 실력을 보자꾸나. 한 번 맞추어 보거라.

선화가 신중히 활시위를 당겼다가, 놓는다.

새 소리가 그치고

선화와 진평왕이 활이 날아 간 쪽을 멀리 내다본다.

진평왕 실력이 대단히 늘었구나! 덕만과 천명도 이 거리에서는 맞추지 못할 것이다. 선화 네가 세 공주 가운데 가장 무예실력이 뛰어나구나.

선화 과찬이시웁니다.

진평왕 네가 왕자였다면 화랑도를 호령할 장수가 됐을 것이다.

선화 ……소녀 비록 여자 몸이오나, 전장에 나가 나라를 지키려면 가장 먼저 칼과 활을 쥐고 뛰어나갈 것이웁니다.

진평왕 (결결 웃다가) 네 가룩한 마음은 모를 것이 아니나, 두어라. 여자는 남자를 다스리지 못하니, 정치도 전쟁도 남자가 하는 것을 모르느냐.

선화 관행을 모르지 않는 바는 아니웁니다. 하오나 그것이 섭리인지는 알 수가 없사웁니다. 설사, 여자 몸으로 전장을 누비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하여도,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덕과 지혜가 필요하지 않사웁니까. 여인들 역시 덕과 지혜를 겸비할 수 있사웁니다.

진평왕 네 말이 그른 것은 아니나, 자고로 덕과 지혜는 성골 남자의 성질이다. 간혹 총명한 성골 여인들은 남자의 성질을 지니고 있기도 하나, 본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으로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선화 하오나 아바마마, 아바마마께서는 늘 후대를 이어 황제가 될 자가 없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부마도위로 삼은 자들 가운데, 어느 하나 제 부인보다 출중한 자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람이 불어오고,

진평왕은 무언가 골똘히 생각한다.

선화도 말이 없다.

진평왕 ……네가 나라를 다스릴 만큼 덕과 지혜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선화 ……송구스럽습니다. 소녀 사냥의 기쁨에 취해, 잠시 허언을 뱉었사옵
니다.

진평왕 네 말이 그른 것은 아니다. 내 어찌 모르겠느냐. 덕만이나 네가 아들이
있어야 했다. 둘 다 태자로 삼을 만큼 총명한 그릇이거늘. 안타깝다, 안
타까워.

선화 그런 말씀 마옵소서……. 아바마마의 심간을 어지럽힌 이 소녀가 죄인
이옵니다.

진평왕 (돌아서며) 바람이 차다. 오늘은 그만 들어가야겠구나.

진평왕, 한숨을 쉬며 천천히 걸어가고,

선화는 반대편으로 걸어간다.

진평왕 ……그러나 후에도 묘안이 없다면 어찌겠느냐. 덕만, 선화, 진실로 너희
둘 중 하나가 황제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진평왕, 독백을 남기고 퇴장한다.

어느새 푸른 밤이 되어

홀로 남은 선화는 천천히 걸으며

스르륵 활과 활통을 내려놓는다.

선화 신라의 황제가 될 수 없다.

머리 장식을 떼어내고,

선화 언니가 둘이나 있으니, 황후가 되기도 어렵겠지.

사냥복을 스르륵 벗으면,

선화 아무리 글을 읽고 무예를 단련한들, 무슨 소용일까. 셋째 공주로 태어
나 단 한 번도 신라를 호령할 수 없는데. 성골이니, 황족이니, 아무 짝

에도 쓸모없어.

선화는 이제 희고 긴 치마 속곳 차림이다.

아름다우나, 한 맺힌 원귀 같기도 하다.

선화 이럴 것이면 차라리 범부의 자식으로 태어날 것을. 그렇다면 궁 밖을
떠돌며 살 수도 있을 것인데……. 나는 궁에서 태어나, 궁에서 죽고 말
것이다. 평생을 공주인 채, 이곳에 갇혀. ……피어 보지도 못하고 질 것
이다.

활통의 활을 하나 꺼내,
관객석을 향해 활시위에 놓고 당긴다.

선화 활처럼 가볍게 날아가, 저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갈 수 있다
면……. 아니, 아니야.

활을 쏘지 않고 내린다.
다시 가만히 활을 보다가,
두 손으로 부러뜨린다.

선화 차라리 꿈을 꾸지 않을 수 있다면……. 이리 괴롭지는 않을 터인데.

꿈꾸듯, 멀리 하늘을 쳐다본다.
박상궁이 등장한다.

박상궁 공주마마! 예구, 속곳 차림으로, 창도 다 열어놓고 계시네. 밤바람에 몸
이 상하십니다. 이제 잠자리에 드셔야지요.

선화 오늘은 잠이 잘 안 올 것 같아.

박상궁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도 안 좋으신데, 잠을 피하면 병이 찾아와요.

선화 ……박상궁, 옛날에 나 어릴 때 기억나? 덕만 언니하고 천명 언니하고
놀면서, 말썽 많이 피웠잖아.

박상궁 아무렴요. 소인이 한 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니까요. 마굿간에 숨어
들어 말들을 놀래키고, 개구리를 잡겠다고 연못에 뛰어들고, 어느 날엔

가는 적색 관복을 입겠다고 때를 쓰셔서, 덕만 공주마마와 천명 공주마마까지 허를 차시기도 했죠. 원, 어찌나 목청이 크시던지. 온 궁궐이 떠나가라 울어대셨어요.

선화 요즘엔, 덕만 언니하고 천명 언니하고 황제 놀이를 했던 일이 자주 떠올라.

박상궁 소인도 알죠. 화백 회의를 한다고 하셨던가, 아무튼 늘 덕만 공주마마만 폐하 역을 맡아 한다고, 심통 나 계셨던 게 생각나네요.

선화 아바마마 역을 해보고 싶었어, 늘. 덕만 언니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그것만은 양보해주지 않았지. 착한 천명 언니는 뭘 해도 웃기만 하고…….

선화, 침울히 고개를 떨어뜨리자

박상궁은 애처로운 듯 선화공주를 바라보다가,
헛기침을 한다.

박상궁 하여튼, 말괄량이 공주마마가 어느새 이렇게 성장하셔서 소인은 기쁘기만 하네요. 아휴, 그땐 얼마나 속이 탔는지…….

선화 (웃으며) 이제는 말썽 안 피우잖아.

박상궁 이제 잠자리에 안 드시면, 소인은 또 속이 타요. 공주마마 보살펴드리는 게 제 일인데, 몸이라도 상하시면 제 속은 아주 까맣게 탈 겁니다. 자아, 어서요.

선화 알았어, 알았어.

박상궁과 선화가 퇴장한다.

- 2장

서동이 마가 잔뜩 담긴 망태를 들고

바닥에서 마를 캐내고 있다.

다 캐낸 마의 흙을 털어, 망태에 넣는다.

힘에 부쳤는지 결의 바위에 털썩 앉아

땀을 흘린다.

서동 답다, 더워. (망태 들춰보며) 신라까지 꾸역꾸역 와서 마나 캐고 있
니, 무어, 당최 할 줄 아는 것이 없으니…….

멍한 얼굴이었다가,
갑자기 도리질 친다.

서동 이럴 때가 아냐. 신라의 공주를 만나러 왔으면서 한탄이나 하고 있어선
안 되지. 생각해 보자, 신라 현왕이 자식을 셋 두었고, 그 셋이 모조리
딸이더라 했지. 첫째가 덕만 공주, 둘째가 천명 공주, 셋째가 선화 공주
라 했어.

세 손가락 펴가며 공주 이름을 외더니
편 손가락을 보며 골똘히 생각에 빠진다.

서동 첫째 덕만 공주는 현명하고 어질다 소문이 나 있지. 그러나 장녀라 쉽
게 내어주지 않을 거야.

첫 손가락을 접는다.

서동 둘째 천명 공주는 이미 혼인을 했다니, 나는 아마 둘째 남편이 될 테
지. 백제의 왕이 될 자가 신라 공주의 첩이 된다니, 안 될 소리.

두 번째 손가락 접는다.

서동 셋째 선화 공주는 덕만 공주만큼이나 총명하기로 이름이 나 있고, 남편
도 없으니, 그가 딱 떨어지는군.

남은 한 손가락 가만히 바라보다가
그 손가락으로 머리를 벽벽 긁더니
벌떡 일어서 서성거린다.

서동 그러나 어찌 신라의 공주에게 가까이 간단 말인가? 마나 캐고 다니는

반머슴 같은 놈이, 성문도 함부로 쳐다보지 못할 텐데. 백제 황족이라고, 위덕왕의 아들이라고 해보았자, 골품 간간히 따지는 신라에서 나 같은 반지기²⁾ 녀석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다.

서성거리던 발을 멈추고,
무언가 생각이 난 듯
망태에서 마를 하나 뽑아 든다.
칼을 뽑는 듯 단호하다.

서동 내 무기는 작은 바늘. ……무기 같지도 않은 이 마와 노래 뿐.

마를 우적 씹어, 꿀꺽 삼킨다.

서동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 황제가 되어라!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중요하다. (관객석 쪽을 내다보며)
신라에도 아이들은 많구나. 마를 주면 좋아하겠지.

마를 하나 더 꺼내 관객석으로 간다.
관객들에게 마를 하나씩 쥐여 준다.

서동 마는 얼마든지 있어. 달라는 대로 줄게. 주린 배를 채우진 못해도 씹을 거리는 될 테니. 노래는 좋아하니? 내가 재미있는 노래를 하나 알고 있지. 들어볼래?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신나게 서동요를 부른다.

서동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 맛둥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관객 보며) 어때, 짧고 재미있지? 따라해 봐. 선화공주님은,

관객들이 서동에게 노래를 배운다.

서동 남몰래 정을 통해두고, 맛둥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쉽지? 자

2) 반지기 : 잡것이 섞이어 순수하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옛말.

아, 이제 다 같이 불러보자.

관객들이 서동요를 부른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
맛둥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서동 잘 부르네! 내일도 여기 오면 마를 더 줄게. 친구들도 데려와. 마를 먹고 노래를 부르자. 알았지?

서동은 다시 무대로 돌아가, 퇴장한다.
어디선가 서동요가 들린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 그러나 점점 크게.
결국 공간을 온통 메우는 노랫소리.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
맛둥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 3장

진평왕이 성큼성큼 무대로 걸어나오고
그 뒤를 선화가 쫓아 나온다.
이내 진평왕이 멈춰 서더니,
선화공주를 뺨 돌아본다.

진평왕 맛둥이란 자는 대체 누구더냐!
선화 모르웁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자이옵니다.
진평왕 모르는 자? 그 자와 네가 밤마다 밀회한다고, 장안의 아이들이 모두 노

래를 부르고 있다! 네가 정녕 행실이 올바르다면 그런 망측한 소문이 어찌 떠돌겠느냐? 말해보아라!

선화 제 피를 걸고 맹서하건대, 저는 그 노래도, 그 맛둥이란 자도 모르웁니다!

진평왕 모른다고, 모른다고만 하면 그만인가……. 나는 신라의 황제다. 허나, 이제 그 누가 나를 믿을 것이냐! 제 자식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나라를 다스린다면 조롱할 것이다! 내 위신은 땅으로 떨어졌고, 그로 신라의 위신도 땅 끝으로 추락했다. 한 나라의 황제가 이다지도 웃음거리가 되다니……. (헛웃음을 지으며) 네가 그러고도 내 앞에서 여인의 덕과 지혜를 말했다니, 가소로울 뿐이구나.

선화 진실로 모르는 일이옵니다. 제발 소녀를 믿어주시옵소서.

진평왕 설령 네가 모르는 일이라 하더라도, 네 말이 모두 진실이더라도, 내가 네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 일을 어찌할 것이냐? 백성들이 너를 비웃는다. 아이가 있는 집마다 그 노랫소리가 안 들리는 집이 없고, 귀가 있는 자마다 그 노래에 대해 얘기한다고 하는데, 어찌할 것이냐? 이 수치스러운 일을, 이 수치스러운 자식을…….

선화 아바마마…….

진평왕 차라리 네가 없는 딸이라면 좋았겠구나.

선화, 눈물이 터져 나오려 하자

제 손으로 입을 막는다.

진평왕은 선화를 노려보다가

성큼성큼 걸어가 퇴장한다.

선화, 진평왕이 간 쪽을 하염없이 보다가

털썩 주저앉아 오열한다.

선화공주 억울하나이다, 원통하나이다, 못 백성들이 헛것을 노래한다 하여, 그것이 진실이 되지는 않나이다. 저 멀리의 노래를 듣지 마시고, 가까이의 소녀를 보아주시옵소서. 아바마마, 아바마마…….

박상궁이 달려와

선화를 부축한다.

박상궁 아니 이런 한 데에, 공주마마, 이렇게 앉아계시면 안 됩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어서요.

선화 억울하오, 억울해.

박상궁 그럼요. 억울하고말고요. 그래도 지체 높은 공주마마께서 이런 곳에 주저앉아 계시면 남 보기 민망합니다. 일단 안으로 드시지요.

박상궁이 선화를 부축해

무대 한 쪽으로 자리를 옮긴다.

선화가 의자에 앉아 흐느끼고,

박상궁이 등을 토닥인다.

이내 무대 반대편 조명이 밝아지고

그곳에 서동이 서있다.

귀에 손을 대고, 좌우를 기웃거린다.

표정이 밝아진다.

서동 이제 이 신라 땅에, 내 노래가 안 들리는 데가 없어. 성공이다. 곧 나는 궁으로 끌려가겠지. ……후에 목이 잘릴지, 신라의 사위가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서동 편 조명 사된다.

선화가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

선화 맛등은 대체 어떤 자길래!

박상궁 아이고 깜짝이야! 공주마마!

선화 대체 어떤 자가 그 노래를 지어 부른 것이야!

박상궁 (앉히며)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일 뿐입니다. 그 노래나, 그 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부디 마음 편히 먹으세요. 화가 쌓이면 병이 됩니다.

선화 어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 그 자의 이름과 내 이름이 섞여 노래가 되었어! 수치스럽고 망측한 노래가! 아바마마도 나를 수치스러워 하시고, 아무 거리낄 게 없는나마저도 얼굴이 붉어져……. (힘없이 다시 앉으며) 아니다, 무엇을 더 궁금해 하겠어. 더 살아 신라 황족의 이름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자결을 하면 아바마마의 위신이 다시 설 것이

다. 이제는 없는 것보다 못한 이 목숨…….

박상궁 아이고,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일은 말도 마시고, 생각도 마세요! 소인 속이 또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선화 나는 일국의 공주다. 내 아버지가 신라의 황제란 말이다. 더러워진 이름은 죽음으로밖에 씻을 수가 없어!

박상궁 아닙니다, 아니에요. 살아서 누명을 벗어야지, 쉽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아니 됩니다.

선화 내가 어찌 누명을 벗겠어? 할 수 있는 일도, 알고 있는 일도 없다. 심지어 맛둥이란 자가 실제로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박상궁 ……맛둥이란 자가 누구인지 알면, 그런 마음을 거두시겠어요?

선화 (놀란 듯) 박상궁이 그 자를 알고 있어?

박상궁 아는 것은 아니고……. 아이고 참, 이 말은 제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속삭인다) 상인들에게 들은 바로는, 장에 마를 내다 파는 떠돌이라고 합니다. 마를 팔아 맛둥이라 별칭하고, 이름은 서동이라 해요.

선화 서동이라……. 처음 노래를 지어 부른 자가 누구인지도 아느냐?

박상궁 그것을 알았으면 진작 폐하께서 그 자의 목을 치셨겠지요.

선화 그 자를 한 번 만나 보아야겠다.

박상궁 누구요? 설마…….

선화 서동 말이다. 어떤 자이길래 내 이름과 엮이었는데, 그 노래를 퍼트린 자가 누구인지, 내 손으로 밝혀내야겠어.

박상궁 공주마마께서 어찌 그런 천한 자를 만나신단 말입니까. 두십시오. 폐하께서 다 알아 하실 것입니다.

선화 그렇다면 진작 그 자를 잡아들이셨겠지! 아바마마께서는 서동을 잡아들이지 못하고 계신 것이다. 잡아들여놓으면, 서동이 궁에 들어갔다고 백성들이 쑥덕거릴 게 아니란 말이야.

서동 편 조명 밝아진다.

여전히 서동이 서 있다.

서동 그리고 보니, 선화공주는 무척이나 아름답다 하였지. 아마도 백옥 같은 피부에, 섬섬옥수를 지녔을 거야. (꿈꾸듯) 그러나 얼굴은 상상할 수가 없구나. 어떤 성격일지도 알 수가 없어. 다소곳한 태도로 미소만 짓는 여인일까, 아니면 명랑하게 웃으며 새처럼 재잘대는 여인일까……. 만

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 (인사하며) 안녕하십니까, 공주마마.

다시 서동 편 조명 사원다.

선화가 별떡 일어나

머리를 올려 묶고

남장을 한다.

박상궁 에이그머니나, 공주마마!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선화 궁 밖으로 나가서, 서동을 찾을 거야.

박상궁 아니, 아니됩니다 공주마마!

선화 나를 말리려면, 지금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궁을 벗어날 거라고 알려.

박상궁 소인이 어찌…….

선화 아니면 내버려 뒀. 난 여기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으니까.

박상궁 ……정 그러시다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선화 그럼 어서 준비해. 제때 돌아오려면, 밤이 늦기 전에 나서야 해.

이번에는 선화 편 조명이 어두워지고

서동 편 조명 밝아진다.

밝아졌어도 조금 어둡다. 푸르스름한 밤.

서동은 선화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할지

연습해보고 있다.

서동 안녕하십니까, 공주마마. (가웃거리며) 안녕하십니까, 선화 공주마마.

……영 어색하네. ……뵙게 되어 크나큰 영광이옵니다, 공주마마. (한숨) 이걸 너무 비굴하구나. ……위덕왕의 아들 장이 인사드리옵니다. 듣던 대로 미모가 출중하시옵니다. (가웃거리며) 명색이 백제의 왕자인데, 존칭을 써야 하나? ……처음 뵈겠소, 선화 공주.

제 풀에 웃긴지, 키득거린다.

이때 남장을 한 선화공주와 박상궁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서동을 발견한 박상궁,

서동에게 말을 건다.

박상궁 거기 자네. 말 좀 묻겠네.
서동 예?
박상궁 서동이 기거하는 주막이 이쯤 있다 하던데, 이곳인가?
서동 (눈치 보며) 그럴 겁니다. 그런데 서동은 뭐 하러 찾으시오?
박상궁 자네가 그걸 알아서 뭘 하나?
서동 서동은 지금 이 주막에 없소.
박상궁 어째서?
서동 내가 서동이니까.

박상궁과 선화, 얼어붙었다가
선화가 대뜸 앞으로 나선다.

선화 네놈이, 그 노래에 나오는 맛둥이냐?
서동 그렇지. 내가 그 맛둥이요.
선화 그렇다면, 그 노래를 퍼뜨린 자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서동 자알 알고 있지.
선화 그것이 누구냐?
서동 그게…… 나요.
선화 무엇이?
서동 귀가 먹었나. 아, 나라고 이 사람아.
선화 네놈이!
서동 아까부터 사람을 두고 이놈 저놈, 당신은 뭐 하는 놈이길래?
선화 네놈을 목을 거두러 온 저승사자다!

선화가 긴 칼을 빼든다.
놀라 물러서는 서동.
박상궁이 선화를 말린다.

박상궁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선화 물러서라! 내 이놈을 죽이지 않고서는 한 순간도 잠에 들지 못할 것이
다!

서동 뭐요 당신은! 선화 공주에게 정혼자가 있었나?
선화 알 것 없다! 영문 모르고 죽어,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어라!

선화가 박상궁을 밀친다.
나동그라지는 박상궁.
선화는 그대로 서동을 향해 달려든다.
서동은 가볍게 선화를 받아
춤추듯 빙글 돌려 끌어안고
칼을 빼앗는다.

서동 기백은 봐줄만 하나, 사람을 너무 알본 게 아니오?
선화 이놈이 감히!
서동 게다가, 무기도 없는 자에게 그리 막무가내로 덤벼서야, 도리에 어긋나
 지 않소!
선화 결투를 하자는 게냐? 오냐! 덤벼보아라!

선화, 이번에는 박상궁이 찬 칼을 빼든다.
칼을 들고 서로를 견제하는 서동과 선화.

서동 정혼자가 아니면, 대체 누구요? 내 선화공주에게 오라비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보아하니 계집보다 비리비리하여, 칼을 겨누기도 미안할
 지경이구려.
선화 네놈은 입으로 싸우는구나!

선화가 달려든다.
칼이 허공에서 부딪친다.
처음에는 서동이 밀리더니
다섯 합을 넘기자,
선화가 뒤로 밀린다.
열 합 켜에 선화의 칼이 저 멀리 날아가고
서동이 선화의 목에 칼을 겨눈다.

서동 자, 이제 목숨을 구걸하겠소?

선화가 분한 듯 서동을 노려본다.

선화 뭐하느냐! 어서 죽여라!

박상궁 아이고, 아이고 어째! 아니 되오! 아니되웁니다 공주마마, 공주마마!

박상궁이 선화 앞을 막아선다.

박상궁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나를 죽여!

서동 공주……마마?

서동이 칼을 내린다.

서동 당신, 누구요?

박상궁 공주마마시다, 선화 공주마마시다 이놈아!

서동이 눈을 크게 뜨고 선화의 얼굴을 살피다가
칼을 던진다.

서동 ……이렇게 만나서는 안 되었는데.

선화 무엇하느냐! 어서 칼을 들어라!

서동 공주. 그리 화를 내기보다는, 진정하고 내 얘기를 좀 들어보오.

선화 어서 나를 찔러 죽이란 말이다!

선화 신라의 공주는 성질이 불과 같구려! 생각해보시오. 공주를 죽여 내 얻
을 것이 무어 있겠소?

선화가 분한 듯 서동을 노려보다가

갑자기 품에서 단검을 꺼내

제 목을 찌르려 한다.

서동이 재빨리 단검의 날을 잡아

자결을 막는다.

서동 무슨 짓이오!

박상궁 공주마마!
 선화 놓아라! 원수에게 목숨을 돌려받고도 자결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금수
 만도 못하리라!
 서동 사람 목숨이 그리 경하오? 이 칼은 놓고 내 말을 들어보시오.
 박상궁 이 자의 말이 맞습니다. 칼을 놓으세요!
 선화 시끄럽다!

선화가 안간힘을 쓰지만
 서동에게 잡힌 단검을 뺄 수가 없다.
 서동의 손에서 피가 뚝뚝 흐른다.

선화 놓으란 말이다!
 서동 공주가 놓으면, 나도 놓겠소.

선화가 더 힘을 준다.
 피가 많이도 흐른다.
 선화와 서동이 서로를 노려본다.
 그러다 선화가 단검을 놓는다.
 서동은 날을 잡은 채 검을 뒤로 던진다.

선화 보통 미친놈이 아니구나.
 서동 궁 밖에서 자결하려는 공주보다 더 미치지는 않았을 거요.
 선화 터진 입이라고 잘도 말하는구나. 그 입으로 그 망측한 노래를 지어 불
 렸느냐.
 서동 그렇소. 허나 공주를 음해하려 그런 것이 아니오.
 선화 음해하려 그런 것이 아니라? 실로 음해하려 했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
 지 두렵구나!
 서동 오해할 만 하오.
 선화 네가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으나, 여전히 나는 신라의 공주다. 어디서
 하대를 하느냐!
 서동 인사가 늦었소. (고개를 숙인다) 나는 백제 위덕왕의 서자, 장이라고 하
 오.
 선화 점입가경이구나. 위덕왕에겐 태자가 하나 있을 뿐이고, 그는 얼마 전

죽었다. 네가 허언으로 나를 능멸하려 하느냐!

서동 허언이 아니오. 이때까지는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비록 적통은 아니나, 나는 황족이 분명하오.

선화 네가 정녕 위덕왕의 서자라면, 어찌하여 신라 땅까지 와 마나 캐고 다니느냐.

서동 나는 백제의 왕이 되려 신라에 왔소.

선화 해괴한 소리를 하는구나.

서동 현황 효순의 뒤를 이어 황위를 잇자면, 강한 힘이 필요하오. 나는 그 힘을 얻으러 신라에 온 것이오. 신라 황가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해, 나의 자질을 증명하고, 무엇보다도 강력한 신라의 힘을 얻으러 온 것이오.

선화 네 말이 사실이라는 증빙은 어디에 있느냐?

서동 그것을 지금 어찌 증명하겠소마는, 공주가 나를 믿어준다면 훗날 백제의 황제가 되어 보이겠소.

박상궁 공주마마, 이 자가 비록 복색은 천하나, 보건대 무예 실력도 남다르고, 하는 말을 들어보니 못 배운 자 같지도 않습니다.

선화 혹여 네가 백제의 황족이라 해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나. 네놈 때문에 나는 온 백성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아바마마의 위신과 궁정의 위엄을 떨어뜨렸다. 네놈 때문에, 네놈의 노래 때문에!

서동 미안하오, 미안하오 공주. 허나 모든 것을 바로잡을 방법이 있소. 나를 도우시오. 내가 백제의 황제가 되도록 도와주시오. 백제의 황후가 되어, 지금 공주를 비웃는 자들을 훗날 비웃으시오.

선화, 아무 말 없이 서동을 노려보는데
멀리서 수탉 우는 소리 들려온다.

박상궁 에그, 벌써 날이 밝아오는구나! 공주마마, 어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박상궁이 선화를 재촉해
무대 어두운 편, 처소 쪽으로 돌아가려 한다.
서동이 선화를 쫓아가려다 멈추고,
선화의 등에 말을 뱉는다.

서동 부디, 백제의 황후가 되어주소.

선화공주 잠시 멈췄다가,
그대로 박상궁과 함께 처소로 들어가고
서동은 물끄러미 선화공주가 간 곳을 바라본다가
아까 던졌던 단검을 집어 든다.
보석이 박힌 단검을 살피다
다시 선화공주 간 곳을 바라보며 말한다.

서동 보석보다 영롱하고, 검의 날보다 날카롭구나.

서동 편 조명이 어두워지고
반대편, 선화의 처소가 밝아지고
어느새 남장을 거둔 선화와 박상궁이 보인다.
선화는 의자에 앉아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고
박상궁은 그러한 공주를 지켜본다.

박상궁 지난밤은 정말 위태했어요. 하마터면 포졸들에게 붙잡힐 뻔 했으니 말
입니다.

선화 분하다. 그 자를 단칼에 베어야 했는데. 아직도 눈앞에 그 쾌심한 얼굴
이 어른거려, 멧돼지를 사냥할 때처럼 심장이 뛰는구나. 한이 되겠다.
뼈에 사무친 한이 되겠어.

선화가 한숨을 쉰다.
박상궁이 묘한 웃음을 짓는다.

박상궁 그래도 다행이지 않습니까. 서동이, 아니 장이 황족이었으니 말입니다.

선화 하등 다행일 것이 없다. 그의 피가 어떻게 간에, 그 노래는 아직도 울
려 퍼지고 있으니.

박상궁 그런 말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백제의 황제가 되겠다는 자입니다. 돌
이켜보건대, 더러운 행색이었으나 골격이 다부지고 흰칠한 것이 귀한
몸은 분명하였습니다.

선화 뿐이나, 눈에는 충기가 있었고, 장중한 목소리는 분명 직심한 자의 것

이었지. 허나 그것만으로 어찌 판단하겠어? 그 자는 직심하기는커녕,
 거짓 노래를 지어 퍼뜨린 자다. 실제 백제의 황족인지도 알 수가 없어.
 박상궁 처형될 위험도 무릅쓰고 그 노래를 퍼뜨린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다만
 공주마마를 아내로 맞이해 힘을 키우려는 것입니다. 신라의 강한 힘을
 등에 업으려는 것입니다.
 선화 신라의 강한 힘이랴……. 그 말이 사실이라면, 보통내기가 아니다. 참으
 로 야욕과 용기가 대단한 사내야.

박상궁 만면에 웃음이 떠오른다.
 더욱 선화 곁에 바짝 다가앉으며.

박상궁 바로 그것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서동과 혼인을 할 수만 있다면, 공
 주마마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선화 내 운명……. 황제도, 황후도 되지 못하는 운명.
 박상궁 늘 그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으셨습니까.
 선화 그 자에게 신라의 힘을 주고, 나는 백제의 힘을 얻는다라.
 박상궁 모두에게 좋을 것입니다.
 선화 신라의 힘, 백제의 황제가 되기 위한 힘, 비웃는 자들을 비웃기 위한
 힘…….

이때 바깥에서 소리 들린다.

공주마마, 폐하께서 드시옵니다.

선화 (깜짝 놀라며) 피서라.

진평왕이 등장하고
 선화와 박상궁이 머리를 조아린다.

선화 아바마마, 어인 일이시옵니까?
 진평왕 공주와 긴히 논할 것이 있으니, 박상궁은 물러가라.
 박상궁 예예.

박상궁이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쳐 퇴장한다.

진평왕 맛둥이란 자를 잡아들였다.

선화 (움찔하며) 그렇사옵니까.

진평왕 바로 그 자가 노래를 퍼트린 장본인이더구나. 그 패썹한 자를, 오늘 밤 처형할 것이다.

선화, 놀라서 가슴에 손을 얹는다.

선화 행여 억울한 죽음이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심문을 하시옵소서.

진평왕 심문이 필요하랴? 그 자가 바로 성문 앞까지 와, 포졸들에게 자기 죄를 실토했다 하더라. 황실을 능멸하는 노래를 지어 퍼트린 자거늘, 처형하는 것 외에 무엇이 급하단 말이나.

선화가 고개를 숙였다가
힘없이 다시 들고 말한다.

선화 ……헌데, 그 말을 직접 전하러 오셨나이까.

진평왕은 말이 없다.
차마 선화의 눈을 보지 못한다

선화 아바마마, 말씀해보시옵소서. 무슨 일이옵니까.

진평왕 ……오늘, 너 역시 처형할 것이다. 네가 더럽힌 황족의 계보를, 네 피로 씻어내리라.

선화, 놀라 말을 잇지 못하는데
진평왕이 품에서 단검을 꺼내 준다.

진평왕 받거라.

선화 아바마마…….

진평왕 스스로 해결하는 편이, 훨씬 명예로울 것이니라.

선화공주, 두 손으로 단검을 받은 채 고개를 숙인다.
진평왕도 괴로워 보인다.

진평왕 하나 궁금한 것이 있다.

선화가 칼을 잡은 손을 내리고,

진평왕 끝내, 진실은 무엇이나.

천천히 얼굴을 들어 왕을 보다가,

진평왕 네가 정녕 나를 능멸하고, 밤마다 맛둥을 만났느냐.

떨리던 표정을 굳히고,
또렷이 말한다.

선화 진실을 알고 싶으시옵니까?

진평왕을 똑바로 쳐다본다.

선화 그 노래가 그 진실이옵니다.

진평왕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뜬다.

진평왕 실로, 네가 맛둥을 아느냐?

선화 그제까지는 몰랐으나, 전일부터는 알게 되었습니다. 알 뿐 아니라, 평생
을 함께 하기로 부부의 연도 맺었사옵니다.

진평왕 그런데도 네가 맛둥을 모른다, 피를 걸고 맹서를 하였느냐?

선화 제 맹서는 잊으시옵소서. 이제 모두 거짓이 되었나이다.

진평왕 고안 년! 어리석은 년!

선화 너무 노여워하지 마옵소서.

진평왕 너를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겠다!

선화 부디 고정하시고, 소녀의 말을 들어보시옵소서.

진평왕 그리 더러운 입으로, 더 말할 것이 남았느냐!
 선화 맛등은 백제의 왕족이옵니다.
 진평왕 무엇이?
 선화 그의 이름은 장이웁고, 그 아버지는 위덕왕이옵니다.
 진평왕 보아하니 네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미쳐버린 것이었구나. 마를 캐는
 떠돌이더러 왕족이라?
 선화 백제의 왕이 되길 꿈꾸는 자이나, 그에 다다를 힘이 없어 저리 떠도는
 것이옵니다.
 진평왕 부여씨 가운데 장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
 선화 위덕왕의 적통은 아니웁고, 숨겨진 서자라 들었사웁니다. 들어보시웁소
 서. 장이 소녀를 엮어 노래를 퍼트린 까닭을 모르시겠나이까? 그것이
 바로 힘이 없는 자가 힘을 얻는 계책이옵니다. 장은 소녀를 부인으로
 맞이해, 백제 왕위에 오를 힘을 얻으려는 것이옵니다.

진평왕이 화를 누그러뜨리고
 선화를 바라본다.

진평왕 ……네 말이 정녕, 사실이나.
 선화 추호의 거짓도 없나이다.
 진평왕 ……네가 그 자를 도와 노래를 퍼뜨리게 했느냐.
 선화 도왔으면 어떻고, 돕지 않았으면 어떻겠습니까? 현명한 왕이시여, 실부
 (實否)를 따지기 전에, 실리를 따져보십시오. 만일 그 자가 백제의 왕이
 되면, 소녀는 백제의 왕후가 되는 것이웁고, 백제는 아바마마의 부마국
 이 되웁니다.
 진평왕 네가 이제 나를 가르치려 드는구나. 허울은 좋으나 실현될 리 만무한
 말이로다.
 선화 소녀 감히 주제님께 말하였사오나, 이는 신라를 위한 간언이옵니다. 무
 릇 가장 좋은 답은 멀리 보는 눈으로만 보이고, 가장 현명한 답은 공상
 처럼 들리기도 한다는 것을 모르시웁니까. 부디 깊이 생각해보십시오.
 이는 피를 보지 않고서도 백제를 취할 수 있는 기회이옵니다.

진평왕이 생각에 잠긴다.

진평왕 백제왕을 사위로 들인다. 백제왕을…….
 선화 소녀가 장에게 백제의 왕위를 쥐여 주면, 장은 곧 신라로 조공을 바칠
 것이옵니다. 아시다시피, 백제에는 금광이 많나이다.
 진평왕 금광이라……. 네가 아주 백치는 아니구나.
 선화 소녀가 어리석은 것은 사실이나, 실리를 따지지 않고 허투루 행동하지
 는 았쌔사옵니다.
 진평왕 허나 장이 백제왕이 되지 못하면 어찌하려 이리도 성급히 움직였느냐?
 너는 왕후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얻지 못
 할 수가 있어!
 선화 어차피 소녀가 신라의 황제가 되지 못하고, 황후가 되지도 못할 것이라
 면, 신라에서 공주로 사는 것이나 백제에서 고통을 겪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사옵니다. 게다가 소녀, 방금까지만 해도 자결해야 할 목숨이
 아니었나이까. 목숨을 걸었사온데, 무엇이 더 두렵겠사옵니까?
 진평왕 ……내 너의 야욕은 진작 알아보았으나, 일이 이리 될 줄은 몰랐다. 네
 가 이제 정치를 하려 드는구나.
 선화 사냥터에서 말씀드리지 았쌔나이까. 여인의 몸으로도 못할 것이 없사옵
 니다.

- 4장

진평왕이 어좌에 앉아 있고
 곁에 선화공주가 비스듬히 서 있다.
 그 앞에 서동이 무릎을 꿇고 있다.

진평왕 귀한 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칠게 대접해 미안하네.
 서동 소생이 신분을 숨겼으니, 당연한 처우이셨습니다.
 진평왕 백제에서 온 금괴는 잘 받았네. 자네는 이리 재물이 많은 왕족이면서,
 어찌 마를 캐는 범부로 변장을 하였는가?
 서동 재물보다 지혜로 공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 금괴는 소
 생의 것이 아니라, 소생의 뒤를 보아주는 두 좌평, 해씨와 진씨의 재산
 이옵니다.
 진평왕 더욱 알기 어렵구나. 그 좌평들의 권세도 대단할 것인데, 자네는 어찌

신라의 힘까지 탐하는가?

서동 힘도 힘이오나, 소생은 신라 땅에서 왕의 자질 두 가지를 증빙하려 했
사옵니다.

진평왕 그 자질이 무엇인가?

서동 왕의 자질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지혜일 것입니다. 소생이 혈혈단신으로,
범부로 변장하여, 오직 지혜 하나로 신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해 데려
왔다 하면, 백성들은 소생을 깊이 신뢰하고 우러러 볼 것입니다.

진평왕 그 말이 옳구나. 허면 또 다른 왕의 자질이란 무엇인가?

서동 신격입니다.

진평왕 신격이라?

서동 못 백성들과 달리, 일국의 왕이라면 모름지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
할 줄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진평왕 그렇지.

서동 헌데 제가 지어 퍼트린 그 노래, 선화 공주가 소생을 밤에 만나러 온다
는 노래는, 결국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진평왕이 무릎을 친다.

진평왕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로다. 진정 장이 백제의 왕이 되겠구나. 어서 혼
인을 올리고, 소문을 잠재워, 선화와 함께 백제로 귀향하도록 하라.

진평왕이 껄껄 웃는다.

서동, 선화 역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곧 진평왕이 어좌에서 일어나 퇴장하고

반대편에서 효순이 등장해 천천히 어좌에 앉는다.

사택씨, 연씨, 해씨, 진씨가 그 양 옆에 무릎을 꿇고

선화와 서동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린다.

해씨 폐하. 장과 그의 부인 선화가 인사를 올린다 하옵니다.

서동과 선화를 찬찬히 살펴보며

미소를 짓는 효순.

효순 네가 진정 마와 노래만으로 신라의 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하였는가?
 서동 그 말씀은 사실이옵니다. 허나, 다만 운이 따랐을 뿐이옵고, 선화 부인
 의 도움도 컸사옵니다.
 효순 신라의 공주가 어찌 도움을 주었는가?
 선화 아니옵니다 폐하. 소인 본래 궁에서 나고 궁에서 자라, 견문이 좁고 큰
 세상을 알지 못했사옵니다. 헌데 남편 부여장이 소인을 이 아름다운 백
 제 땅으로 이끌었고, 덕으로 칭송받는 폐하 앞에 세워 감은 눈을 뜨이
 게 했사온데, 제 어찌 감히 그를 도왔다 할 수 있겠사옵니까.
 효순 두 부부가 모두 지혜롭고도 겸손하구나. 과연 부여장은 황족이라 할 만
 하다. 황제의 자질을 모두 갖추었고, 부인 역시 황후의 자질을 갖추었
 도다.

사택씨, 연씨가 허둥지둥 고한다.

사택씨 폐하. 성급한 말씀은 거두어주시옵소서.
 연씨 아직 장이 황족이라는 확실한 증빙도 없사옵니다.

해씨와 진씨가 나선다.

진씨 폐하께서 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좌평들은 아직도 의심을 거두지 못
 했구려.
 해씨 장이 보여준 지혜와 용기가 증빙이 아니면, 그 누가 황족이라 할 수 있
 겠소.
 효순 해좌평과 진좌평의 말이 맞도다. ……내 부여장을 무강태자로 책봉하
 여, 백제의 앞날을 굳건히 하리라.
 사택씨 폐하!
 효순 짐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보다, 부처를 섬기는 일이 더 백제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내 곧 퇴위하여 신심을 다해 불도를 닦고, 만민을 극락
 왕생의 길로 이끌 것이다.
 연씨 아니되옵니다 폐하. 어찌 벌써부터 퇴위를 말씀하시옵니까.
 사택씨 백제는 아직 폐하의 은덕을 입어야 하옵니다.

효순이 꺾꺾 웃는다.

효순 허면, 공들이 내 은덕을 입는 것이 아니오?
사택씨 폐하……. 무슨 말씀이시온지…….
효순 백제가 아니라, 공들이 내 은덕을 입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물었소.

사택씨와 연씨가 대답하지 못한다.
효순이 빙그레 웃는다.

효순 참으로 기쁘지 아니한가. 이제야 황제의 재목을 찾아, 내 이 황위의 업
 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니…….
해씨 비록 폐하께서 퇴위하시는 일은 섭섭하고 안타까우나, 한편으로는 기
 쁘기 그지없나이다.
연씨 이제 백제는 현명한 두 황제의 덕으로, 민생과 불도의 앞날이 함께 열
 릴 것이옵니다.

효순이 껄껄 웃는다.

효순 내 황위에 오른 이래, 이처럼 기쁜 날이 없었도다. 곧 부여장과 선화공
 주의 혼인식을 올리고, 태자 책봉식도 함께 거행하라.

좌평들, 서동, 선화 모두 머리를 조아린다.

해씨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진씨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사택씨와 연씨는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못마땅한 듯 고개를 젓는다.
암전.

3막

- 1장

무대 한 편이 밝아온다.

서동의 처소다.

해씨와 진씨가 서동 앞에 앉아있다.

해씨 경축드립니다, 태자전하.

진씨 이제 곧 온 백제가 태자전하의 발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서동 공들의 덕이 크오. 내 절대 공들을 잊지 않으리다.

진씨 감사하옵니다 태자전하.

해씨 태자전하를 보필하는 데 저희 좌평들이 조금의 누도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동 선화부인 역시 잘 보필하도록 하시오. 먼 곳에서 이 백제 땅까지 왔으니, 내색은 하지 않아도 적응이 어려울 것이오.

진씨 여부가 있겠습니까. ……하오나 태자전하, 태자전하를 보필하는 데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서동 어려움이라? 그것이 무엇이오?

해씨와 진씨가 서로 눈치를 본다.

해씨가 목을 가다듬고 말문을 연다.

해씨 효순이 곧 황위에서 물러난다 하였으나, 말만으로는 그것을 믿기 어렵사옵니다.

진씨 태자전하께서 황위에 오르실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거니와, 사택씨와 연씨가 주변에 도사리고 있으니, 언제 태자에서 폐출될지도 모르옵니다.

해씨 이대로 가만히 앉아 주는 황위를 기다리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옵니다.

서동의 얼굴에 근심이 어린다.

서동 허면, 내 어찌 해야 하겠소?

해씨 묘안이 하나 있사온데, 차마 말씀드리기 어렵사옵니다.

진씨 태자전하께서 일을 감행할 수 있으실는지 모르겠사옵니다.

서동 말해보시오. 공들의 말이라면 내 물리치지 않으리다.

해씨와 진씨가 서로 눈치를 본다.

해씨가 몸을 굽히고, 낮게 속삭인다.

해씨 방해가 되는 것을 없애고, 길을 내어야 합니다.

진씨 화근이 될 것이라면, 뿌리까지 캐어 없애야 합니다.

서동 그 무슨 말이오?

해씨가 자기 목을 긋는 시늉을 한다.

진씨가 고개를 끄덕인다.

서동이 벌떡 일어난다.

서동 지금, 황제를 암살하라 하는 거요?

해씨와 진씨가 황급히 서동을 말린다.

해씨 태자전하, 목소리가 크시웁니다.

진씨 누가 들을까 염려되웁니다. 고정하옵소서.

서동 내게 어찌 그런 일을 논할 수 있소? 황제를 모시는 그대들이 어찌!

해씨 모르시웁니까 태자전하. 돌아가신 아좌태좌 역시 효순을 모시려는 자들
에 의해 시해당했사웁니다. 태자전하의 형이자, 위덕왕의 적통이었던
그 역시 그리 되었습니다.

진씨 이것이 황족의 어지러운 계보를 낳았사웁니다. 바로 이것이 황제가 되
는 비법이웁니다.

서동 이것이 황족이라! 이것이 황제라! 어지럽고 더럽다. 내 거기 편승할 줄
아느냐!

해씨 생각해보옵소서. 사택씨와 연씨 무리는 보통내기가 아닙니다. 죽이지
않으면 죽임당할 것이웁니다.

진씨 황제가 되지 못할 것이웁니다.

서동 시끄럽다!

해씨 근 시일 내에 생각이 바뀌실 것이웁니다. 그때는 명만 내리옵소서.

서동 물러가라! 꼴도 보기 싫다!

해씨와 진씨가 일어나 주춤주춤 퇴장한다.

서동은 머리를 싸죄다.

서동 더럽다! 더럽고 더럽다!

서동이 괴로워하며 무대 반대편으로 걸어간다.

무대 반대편 밝아지고, 거기 선화가 서 있다.

선화의 처소다.

선화 아니, 이 늦은 밤에 어인 일이십니까. ……안색은 왜 이리 창백하십니까.

서동 끔찍한 꿈을 꾸었소.

선화 꿈이라니요. 무슨 꿈이었습니까?

서동 피로 칠갑이 된 어좌에 앉는 꿈이었소.

선화 어좌에 앉는다니, 그리 나쁜 꿈은 아닐 것입니다.

서동이 선화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는다.

선화가 서동의 등을 토닥인다.

서동 두렵소. 두렵고 두렵소.

선화 진정하세요. 곧 황제가 될 분이, 참으로 어린아이 같으십니다.

서동 차라리 어린아이였으면, 산에서 노래나 부르고 마나 했으면 좋겠소.

선화가 서동을 떼어낸다.

선화 어찌 그리 나약한 소리를 하십니까. 황제가 되겠다 부르짖어도 모자랄 판국에, 어린아이가 되겠다 이리 우시다니요.

서동 황제? 황제가 다 무엇이오? 처음부터 허황된 꿈이었소. 나는 황제가 될 자가 아니오.

선화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말이 씨가 된다 하더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무슨 말을 들었기에 이리도 슬퍼하십니까.

서동이 실없이 웃는다.

서동 내가 황제가 되려면, 손에 피를 묻혀야 한다 하오.

선화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동 죽이지 않으면 죽임당한다 하오.

선화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고심한다.

서동이 갑자기 선화의 두 손을 부여잡는다.

서동 도망칩시다.

선화 도망이라니요?

서동 이 궁에서 도망쳐, 산에 가서 삽시다. 마를 캐어 먹고 살고, 아이는 서
넛쫂م 낱고, 노래를 가르치며 삽시다.

선화가 화난 듯 서동의 손을 뿌리친다.

선화 제가 고작 산에 들어가려 이 머나먼 백제 땅까지 왔다 생각하십니까?

서동 허면 효순을 죽이란 말이오? 내가 그리 명하란 말이오?

선화 못할 것이 있습니까? 대체 무엇 때문에 신라까지 와 저를 데려가셨습
니까? 백제의 황제가 되리라 했던 그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야망
가득한 분은 어디로 가고, 이리 나약한 사내가 제 손을 붙들고 울고 있
습니까?

서동 모르겠소. 모르겠소. 도무지 모르겠소.

선화가 서동을 똑바로 쳐다본다.

선화 저는 알겠습니다. 따질 것 없이 자명한 일입니다. 태자전하는 황제가
되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서동이 고개를 들어

놀란 듯 선화를 본다.

선화의 표정은 결심으로 굳어있다.

서동 부인, 제정신이요?
 선화 제정신입니다. 여느 때보다도 명료한 정신입니다. 이제 태자전하께서는
 가서 할 일을 하십시오. 가서 황제가 되는 길을 여십시오.
 서동 부인이 어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소?
 선화 도저히 맨정신으로 할 수 없으시다면, 제게 진 빚을 갚는다 생각하십시오.
 서동 빚을 갚는다니, 무슨 소리요?
 선화 저는 태자전하와 제 꿈이 같으리라 믿었고, 하여 이 백제까지 쫓아온
 것이옵니다. 헌데 이제 와 그 꿈을 저버리신다니, 제게 빚을 지신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서동이 말없이 선화를 바라본다.
 슬픈 눈이다.
 선화는 고개를 돌린다.

선화 명심하십시오. 황제는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옵니다. 태자전하의 꿈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옵니다. 부디 꿈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태자전하께서
 무너지면, 저 역시 무너집니다.
 서동 부인…….
 선화 밤이 늦었습니다. 처소로 돌아가시지요.
 서동 부인…….

서동이 다시 선화의 손을 잡는다.
 선화가 매섭게 뿌리치며 소리친다.

선화 정녕 나약함으로 일을 그르치시겠습니까!

서동이 놀란 듯 선화를 바라보다
 천천히 몸을 돌려, 터덜터덜 걸어간다.
 선화는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앉는다.

선화 황후가 되리라. 백제의 황후가…….

서동은 제 처소에서 울부짖는다.

서동 황제가 되리라. 피로 칠갑한 어좌에 앉으리라…….

무대 갑자기 어두워지고

소리만 들려온다.

그릇이 깨지고 물건들이 떨어지는 소리,

칼 부딪치는 소리, 죽음의 단말마.

뒤이어 백제악³⁾이 울린다.

무대 밝아지면

왕위승계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커다란 수레 위에 서동과 선화가 서 있고

좌평들이 작은 방석 위에 왕관을 받쳐 나와

서동과 선화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바친다.

서동과 선화가 왕관을 머리에 쓴다.

서동이 외친다.

서동 나 백제의 황제 장은 이른다. 승하하신 선왕은 불도를 닦아 백성을 구
제하는 데 힘쓰셨으니, 법왕이라 시호를 붙이라.

좌평들이 머리를 조아린다.

진씨 황명을 받들어, 승하하신 선왕의 시호를 법왕이라 하겠사옵니다.

서동이 좌평들을 둘러보고

다시 한 번 외친다.

서동 나 백제의 황제 장은 이른다. 선왕 법왕을 시해한 자를 찾아내는 데 만
력을 기하라. 내 그 자의 목을 베어 선왕의 묘소에 바치리라!

3) 백제악은 기록으로만 전해지고 있다. 금동용봉봉래산향로를 보면 장적(長笛)과 소(簫), 북, 금(琴), 완함을 연주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 이 극에 쓰이는 백제악은 이들 악기와 비슷한 악기로 연주되기만 하면 된다.

좌평들이 다시 한 번 머리를 조아린다.

해씨 황명을 받들어, 만드시 그 극악한 자를 찾아내겠습니다.

좌평들이 머리를 들어 관객석으로 몸을 돌린다.

해씨 백제의 황제가 납시었다!

진씨 만민은 길을 열어 황제를 반기라!

서동과 선화가 백성들에게 손을 흔든다.

인자한 미소를 만면에 띄웠다.

서동이 선화를 보며 말한다.

서동 부인, 이 모든 백제가 다 부인 것이요.

선화 이 모든 백제가 다 폐하 것이옵니다.

서동 행복하오?

선화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흐르려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행복합니다.

선화는 감격에 찬 얼굴로 다시 백성들을 향해 손을 흔든다.

서동 역시 백성들을 향해 손을 흔든다.

- 2장

무대 밝아지면

무대 한 편에서 해씨와 진씨가 쑥덕거리고 있다.

진씨 부여장이 황위에 올랐으니, 이제 우리 세상일세.

해씨 안심하긴 일러. 사택씨와 연씨의 권세가 그리 쉽게 죽진 않을 것이네.

진씨 그래보았자 혜왕 세력이지. 위덕왕의 아들이 지금 백제의 황제인데, 두려워할 것이 뭐 있겠는가.

해씨 자네는 사택씨를 모르는가? 꼬리가 아홉 개 달린 늙은 여우일세. 언제 뒤를 칠지 알 수 없어.

진씨 그러면 어찌하겠나? 그저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당하기 전에 권세를 넘죽 내놓겠는가?

해씨 사택씨와 연씨가 오기로 했으니, 일단 말을 들어보도록 하지.

사택씨와 연씨가 등장한다.

해씨 오셨소.

연씨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사석에서는 오랜만이구려.

진씨 그 말이 맞소. 그동안은 사택좌평과 연좌평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으니.

사택씨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그간 황제가 너무 자주 바뀌어, 우리 모두 국사를 돌보느라 힘들지 않았소. 다 그 때문이오.

진씨 과연 여우로다.

사택씨 이렇게 모이자고 한 까닭은, 왕이 또 한 번 바뀌었기 때문이오.

연씨 이로써 황제를 네 분이나 모시게 되었지 않소.

사택씨 우리의 덕이 부족하여, 황실의 위엄이 떨어지고 있소.

해씨 사설이 길구려.

사택씨 예전에는 세력을 나누어 다투었으나

연씨 권력을 잡으려 다투었으나

사택씨 이제는 화해를 해야 할 때요.

해씨 글썄을시다. 우리는 화해할 까닭을 모르겠소.

연씨 잘 생각해보시오.

사택씨 선왕인 혜왕과 법왕은 황제라기보다는 허수아비였소. 귀도 얇고, 물정도 모르니,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었지.

연씨 그러나 부여장은 다르오.

사택씨 그는 연못가에서 잉태된 용의 아들. 혈혈단신으로 신라에 가, 마와 노래만으로 선화공주를 얻은 자이며, 선정으로 백성들의 신뢰와 우러름을 받고 있소.

연씨 총명하여 읽지 않은 책이 없고, 강하여 무예로도 이길 자가 없다하니. 누구도 뜻대로 움직일 수 없을 것이오.

사택씨와 연씨의 말에,

해씨와 진씨가 서로 얼굴을 보며

난감한 표정으로 눈빛을 교환한다.

이내 해씨가 헛기침을 하더니

말을 꺼낸다.

해씨 듣자하니 틀린 소리는 아니구려.

진씨 그렇소. 황제 힘이 강해지는 것은 시간문제로다.

사택씨 백제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황제의 힘을 억눌러야 하오.

연씨 그러니 우리 손을 잡읍시다.

해씨 허나 손을 잡는다 하여도, 방도가 없지 않소? 어찌 황제를 누를 것이
오?

사택씨 일단 가장 시급한 일은, 황제의 가장 큰 무기를 없애는 것이오.

해씨 가장 큰 무기라 하면…….

사택씨 여인을 내세워 왕이 된 자이니, 그 여인을 없애면 될 것이 아니겠소.

사택씨가 미소를 짓는다.

마주본 해씨도 미소를 짓는다.

사택씨 황제를 부추겨 신라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황제 스스로 그 여인을 없
애게 하면, 부러 힘을 쓸 필요도 없을 것이오. 황후와 소비의 빈자리엔,
우리 딸들을 채워 넣읍시다.

해씨 황제의 힘은 누르고, 우리 좌평들의 힘을 키운다라!

연씨 옳소! 신라를 주적으로 삼고 힘을 합쳐 세력을 키웁시다.

진씨 백제의 앞날을 위해 단결합시다!

좌평들의 꺄꺄대는 웃음소리

무대를 메운다.

암전.

4막

- 1장

무대 밝아지면
중앙에는 어좌가 놓여있고
서동이 무대 한쪽에,
선화가 다른 한쪽에 서있다.
둘 다 황제와 황후의 복색을 차려입었다.
서동이 어좌에 앉는다.

서동 백제의 황제가 되었다.

선화가 어좌 뒤에 선다

선화 한평생의 소원을 풀었다.
서동 신라의 배경을 뒤에 두고
선화 남자를 내세워 야욕을 채웠다.

해씨와 진씨가 등장해
어좌 한쪽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한다.

해씨 폐하. 신라왕이 또 사신을 보내어, 금을 요구하옵니다.
진씨 저 신라가 백제를 업신여기어, 국고를 통째 들어내고 있습니다.
해씨 부디 신라를 치셔서, 백제의 위엄을 보여주십시오.
선화 그 무슨 망발인가! 아바마마의 나라, 내 고향을! 아니되옵니다 폐하! 저
간신배들의 말을 듣지 마옵소서.

그러나 선화의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다.
선화는 무대를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말해도 좋다.

서동 군사를 정비하라. 내 아막산성으로 진군해, 친히 신라를 치겠노라!
선화 폐하! 아니되옵니다!

이번에는 사택씨와 연씨가 등장해
해씨와 진씨 반대편에 무릎을 꿇고 고한다.

사택씨 폐하, 망측한 소문이 성안에 파다하옵니다.
 연씨 신라의 독소가 백제를 무너뜨리고 있나이다.
 서동 망측한 소문이라? 신라의 독소라?
 사택씨 아뢰옵기 황망하오나,
 연씨 말로 하기도 민망하오나,
 사택씨 선화대부인이 밤마다 성을 나가 웬 사내를 만나고 돌아온다 하옵니다.
 연씨 그것도 한 사내가 아니라, 사내들이라고 하옵니다.
 선화 거짓이로다! 참언(讒言)이로다! 억울하옵니다 폐하! 저 자들이 저를 모
 함하고 있나이다. 폐하의 혜안으로 저들의 시커먼 속내를 꿰뚫어 보아
 주시옵소서!
 서동 신들에게 증빙이 있소? 누구라도 선화부인이 그리하는 것을 목격하였
 소?
 사택씨 비록 증빙은 없사오나, 선화부인이 신라의 공주일 때도 밤거동을 즐겨
 했다는 것을 모르는 자가 없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그 일을 노래하니,
 연씨 지금이라고 그 악취미가 어디 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선화 억울하옵니다 폐하! 분하고 원통하여 피눈물이 흐르나이다!

해씨와 진씨,
 사택씨와 연씨가 일어서 모두 손을 잡고
 서동이 앉은 어좌 주위를 둥글게 돈다
 강강술래 하듯 경쾌하다.
 그러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 무릎을 꿇는다.

사택씨 폐하, 이제 백제의 위엄을 새로이 세울 때가 왔사옵니다.
 해씨 낡은 물은 흘러보내고, 맑은 물로 채워야 하나이다.
 진씨 신라의 여인은 신라 토벌에 짐이 될 뿐이옵니다. 백제의 여인을 황후로
 들이시옵소서.
 선화 해괴하도다! 황후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또 황후를 들일 수가 있느냐!
 폐하, 저들이 다시는 망발을 하지 못하도록 목을 치소서!
 사택씨 모조록 좌평의 딸을 황후로 맞이해 나라의 결속을 다지시옵소서.
 선화 사택좌평 네가 욕심에 눈이 멀었구나! 나는 신라의 공주, 백제의 황후
 다. 어디서 일개 호족 따위가 감히!
 서동 물러가라, 모두 물러가거라!

서동이 어좌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허위허위 앞으로 걸어 나온다.
좌평들이 눈치를 보며
어좌를 들고 흠쳐가듯 퇴장한다.

서동 부인, 선화부인 어디있소.
선화 여기 있습니다 폐하!

선화가 달려가 서동의 손을 잡는다.
서동도 선화의 두 손을 꼭 잡는다.

서동 어머니, 어디계십니까 어머니.
선화 어찌 어머니를 찾으십니까.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서동 제가 바늘을 얻었습니다.
선화 바늘이라니요?
서동 날카롭고 얇아, 자칫하면 부러질 바늘입니다, 어머니.
선화 정신차리세요 폐하!
서동 왜 저는 큰 칼을 가질 수가 없습니까. 황제가 되었는데도, 왜 칼 대신
바늘을 지녀야 합니까. 어찌하여 저는, 삼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입에 물고 가야 합니까. 어머니!

선화가 서동의 얼굴을 어루만진다.

선화 폐하! 부디!

서동이 눈을 크게 뜨고 선화를 보다가
끌어안고 키스를 한다. 급히 암전.

- 2장

이른 아침, 용화산4).

가마 두 대가 무대에 나란히 있다.

가마 한쪽에서는 서동이,

가마 한쪽에서는 선화가 나온다.

서동 가을 산은 오랜만이요.

선화 바람이 선선하니, 날이 좋습니다. 의자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서동 그러게 말이요. (관객석 가리키며) 부인, 저쪽 지대를 보시오. 편평하고
고르며 지기가 남다르니, 큰 가람을 세우기에 안성맞춤이요.

선화 참으로 그렇습니다.

서동 이 앞에는 당간지주를 세우고, 저쪽에는 석탑을, 또 저쪽에는 동탑을
세울 것이요. 저 중앙으로는 큰 연못을 파낼 것이요.

선화 참 크기도 합니다. 이처럼 큰 가람이 다 지어질 때쯤에는, 우리 의자도
홀쩍 커 있겠습니다.

서동 지금도 의자는 해동의 증자⁵⁾라 불리우니, 그때쯤에는 성군의 자질을
모두 갖추었겠구려.

선화 생각만 하여도 흐뭇하고 배가 부릅니다.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진다.

선화 ……허나 폐하도 아시지요. 그 어린 것이, 목숨이 아까워 몸을 사리느
라 그런다는 것을.

서동 타고난 성정이 그런 것뿐이요. 괜히 사족을 달 필요가 있소?

선화 의자는 본디 한창 쫓고 까불어야할 나이입니다. 신라에서 흘러들어온
이 어미의 피 때문에 언제라도 폐출될까, 죽임당할까 무서워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여 짐짓 어진 척, 책잡힐 일을 하지 않으려 애쓰는 것을
모르십니까.

서동 무슨 애길 하고 싶은 게요.

선화 제가 얼마 전, 신라의 황족 계보에서 폐출되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
요.

서동 내 탓을 하고 싶은 게요?

4) 현재의 미륵산.

5) 해동증자. 의자왕의 태자 시절, 효성이 지극하고 형제들과 우애가 깊어 지어진 별칭이다.

선화 아닙니다 폐하. 저는 다만 세 가지 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화가 서동에게로 몸을 돌려
다소곳이 선다.

서동 어디 말해보시오.

선화 그 전에, 청을 들어주신다, 먼저 약조해주십시오.

서동 무슨 청이기에 약조부터 해 달라 하오?

선화 폐하께서 들으시면, 오래 괴로우실 청이옵니다.

서동 두렵구려.

선화 저 역시, 드리기 괴로운 청이옵니다.

서동 더욱 두렵구려.

선화 허나 결국에는, 폐하와 신첩, 모두를 위한 청이옵니다.

서동 등골이 저리도록 두려우나, 말해보시오. 부인의 청이라면 내 못 들어줄
것이 없을 것이오.

다시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진다.

선화 그 가운데 첫째는, 저를 폐하의 손으로 죽여 달라는 것입니다.

서동 아니, 어찌 그런 말을 하시오?

선화 언제가 되었든 저는 곧 죽을 목숨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남에게 죽임당
할 바에야, 혹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될 바에야, 차라리 폐하께서
목숨을 거두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서동이 서글프게 선화를 바라보다
고개를 떨어뜨린다.

선화 두 번째 청은, 제 이름을 신라의 계보에서 폐출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
다. 부디, 백제의 황후 선화부인을 역사에 남겨주시옵소서.

서동이 천천히 고개를 든다.
선화가 서동을 바라본다.

간절한 눈빛이다.

선화 마지막 청은, 의자를 잘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어질다 칭송을 받으나, 그도 속은 누구보다 불안할 것입니다. 모쪼록 그의 심간을 살펴주시고, 그의 신변을 보호해주시고, 꼭, 그가 왕위를 잇도록 해주십시오.

서동이 설움을 참지 못하고

선화에게서 몸을 돌린다.

선화는 서동의 뒷모습을 보며 묻는다.

선화 부디 제 청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서동 뒤의 두 가지 청은 들어줄 수 있으나, 처음 것은 바라지 마시오. 내게 어찌 부인을 베라 할 수 있소. 잔인하오. 치가 떨리도록 잔인하오.

선화 폐하께서는 옛정을 생각하시어,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배웅해주지 않으시렵니까.

서동 그럴 수 없소. 그럴 수 없어!

선화가 서동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몇 발자국 다가가 손을 뻗으려다, 이내 거둔다.

그리고 선화 역시 천천히 등을 돌린다.

선화 바람이 참니다. 그만 돌아가시지요.

서서히 조명이 어슴푸레해진다.

푸른 밤.

서동은 무대 한 편으로

선화는 그 반대편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긴다.

각자의 처소에 홀로 남겨진 둘.

관객석을 보며

서로에게 들리지 않는 말을 나눈다.

서동 우리가 서로의 꿈이었을까…….

선화 우리가 서로의 무기였을까…….

서동 사랑하오. 사랑하오 부인.

선화 살아가세요 폐하. 살아남아 황위를 지키세요.

서동이 괴로움에 머리를 쥐어뜯는다.

서동 아무도 지킬 수 없다.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어. 제 아무리 황제라도.

선화 제 아무리 황후라도, 하루아침이 지나면 이슬로 사라지는구나. 어찌 그
 것을 몰랐을까. 어찌 그리 어리석었을까.

서동 이 권세가, 황제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모두 놓아버릴 수 없어,
 허울만 좋다. 황제는 황제로되, 궁에서 옥살이를 하는 죄인이로구나.

선화 죄인이로구나. 여인의 몸으로 야욕을 품은 것이 죄로구나. 덕만 언니는
 황태녀로 책봉되었다지. 좋은 일이다. 허나 무슨 차이일까. 같은 피를
 나누고, 비슷한 성정을 지녔어도, 운명은 덕만언니를 신라의 황제로 추
 대하고, 나는 폐출하였어.

서동 하여 나는 여기에 홀로 남는구나. 빛 한 줄기 비치지 않는 이 캄캄한
 어둠 속에.

선화 허나 의자가 있으니 다행이다……. 성군이 될 내 아들.

선화가 스르륵 바닥에 앉고
서동은 실성한 듯
웃음을 흘린다.

서동 어머니, 어머니.

선화 성군이 될 내 아들!

서동 좋으십니까 어머니. 제가 황제가 되어 좋으십니까. 황위가 그리 좋다
 하시더니, 궁으로 들어가 백제를 다스리라 하시더니, 보십시오. 궁에는
 피바람이 몰아치고, 제국은 황위 빼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선화가 품에서 단검을 꺼낸다.
스르륵 칼집을 여니, 날이 푸르게 섰다.

서동은 허위허위 손을 내젓는다.
귀신을 향해 말하는 듯하다.

서동 아니 되오. 아니 되오. 내가 잘못하였소. 어머니 떠나지 마시오. 아들이
 황제가 되는 것을 보고 가시오.
선화 괜찮다. 나는 백제의 황후. 천년만년을 지나도 살아남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리라. 백제 황제의 어머니가 되리라!

선화가 단검을 치켜든다.
서동이 크게 절규하며
털썩 무릎을 꿇고 손을 내뻗는다.

서동 가지 마시오!

서동의 절규가 찾아들고
깊은 침묵이 감돈다.
조용하고, 서늘하다.
선화가 치켜든 칼끝을 올려 보며
마지막 독백을 내뻗는다.

선화 허나 쓸쓸하구나……. 한때는 나를 믿으라 하며 칼날을 잡았던 이가,
 이제는 곁에 없어. 자신을 믿어달라던 그분은, 황후가 되어달라던 그이
 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선화가 스스로 목을 찌르고
옆으로 쓰러진다.
서동은 몸을 굽히며 오열한다.

서동 가지 마시오, 가지 마시오!

서동의 오랜 흐느낌 뒤에
조명 찾아들며
암전.

에필로그

서동이 어좌에 앉아있고
사택씨, 연씨, 해씨, 진씨가 그 양 옆에 늘어서 있다.
모두 많이 늙었고
서동 역시 얼굴에 흘러간 세월이 드러난다.

해씨 폐하, 미륵사 건설이 끝을 보이고 있다 하옵니다. 부처님의 은공이 곧 백제에 닿을 것이옵니다.
연씨 폐하의 크신 덕으로 이처럼 큰 가람을 완공하게 되었으니, 백제의 앞날에 빛이 보이옵니다.
서동 내 어찌 홀로 미륵사를 지었다 할까. 공들이 힘을 써준 덕이 크오.
사택씨 황송하옵나이다.

좌평들이 함께 머리를 조아린다.

진씨 폐하, 사리봉안기에 새길 문장을 준비해 보았사온데, 들어보시겠나이까.
사택씨 미륵사 석탑 아래에 넣어둘 것이옵니다.
서동 누구의 문장인가?
사택씨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소신의 문장이옵니다.
서동 사택좌평의 문장이라, 기대되는구려. 어디 한 번 읊어보시오.

사택씨가 문서를 펼쳐 읽기 시작한다.

사택씨 우리 백제 황후께서는 좌평 사택적덕의 따님으로, 지극히 오랜 세월애 선인을 심어 금생에 뛰어난 과보를 받아, 만민을 어루만져 기르시고 불교의 동량이 되셨기에, 능히 정재를 회사하여 가람을 세우시고, 기해년 정월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맞이했다.⁶⁾

사택씨가 계속 읽는 가운데

6) 금제사리봉안기에 새겨진 문구를, 김상현 동국대 교수가 한글로 옮긴 것이다.

서동이 힘없이 중얼거린다.

서동 미안하오 부인. 그대의 두 번째 청마저도 내 저버리고 말았소……. 그대는 무덤도 없이, 영원히 역사에 묻혀,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리라. 내 무기. 내 바늘. 내 꿈, 선화부인……. 모두 함께 사라지리라.

사택씨가 여전히 읽고 있다.

사택씨 원하옵나니 세세토록 공양하고 영원토록 다함이 없어서, 이 선근을 자량으로 하여 대왕폐하의 수명은 산악과 같이 견고하고 치세는 천지와 함께 영구하여, 위로는 정법을 넓히고 아래로는 창생을 교화하게 하소서. 또 원하옵나니, 황후의 신심은 수경과 같아서 법계를 비추어 항상 밝히시며, 금강 같은 몸은 허공과 나란히 불멸하시어 칠세의 구원까지도 함께 복리를 입게 하시고, 모든 중생들 함께 불도를 이루게 하소서…….

서동이 별떡 어좌에서 일어나, 다시 입을 연다.

이번에는 좀 더 기운 찬 목소리.

서동 허나 우리의 아들, 의자는 내 뒤를 이어 황제가 될 것이오. 그는 기필코 좌평들의 모함과 계락을 물리치고, 성군이 되어 백제를 다스리리라. 하여, 부인의 피는 대대손손 백제의 황제로 권세를 이어가리라.

서동, 앞으로 더욱 나서며,
관객석을 향해 손을 내뻗는다.
마치 그 앞에 선화가 서 있는 듯
구슬프게 고한다.

서동 ……미안하오. 미안하오. 미안하오 부인…….

서서히 조명 찾아들고
사택씨의 목소리와 서동의 목소리도 따라 찾아들고
완연한 어둠과 침묵 속에서

작은 노랫소리 들려온다.
처음에는 작게, 그러나 점점 크게,
마침내 공간을 모두 메우도록.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
맞둥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막